

원희룡 장관-네옴CEO, 네옴 아시아 첫 전시회 서울 개최 합의

- 네옴CEO와 화상면담… 3분기 중 국민·기업 관심을 반영하여 전시기간 결정키로
- 전시회 성공 개최를 위한 국토부-네옴 간 실시간 소통채널 구축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5일(수) 오후 4시, 오송역 회의실에서 나드미 알-나스르(Nadhmi A. Al-Nasr) 네옴컴퍼니 CEO와 화상면담을 갖고, 사우디아라비아 외 국가로는 최초로 한국에서 ‘네옴 더 라인 전시회’(이하, 네옴 전시회)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한편, 네옴 프로젝트 관련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.
- 이에 앞서, 작년 11월 원팀코리아 사우디 순방 시 원 장관은 미래 친환경 도시인 네옴 프로젝트에 스마트시티·IT·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네옴 전시회의 서울 개최를 제안한 바 있으며, 나드미 CEO 역시 전시회 등 홍보를 세계로 확대할 예정으로 서울을 그 첫 도시(아시아 최초)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.
- 오늘 화상면담에서 나드미 CEO는 네옴 더 라인 전시회 서울 개최를 확정하였으며, 개최시기는 올해 7월에서 9월 사이 개최할 예정으로 개막식에 원 장관을 초청할 예정이라고 하였다.
- 원 장관도 “네옴 더 라인 전시회 한국 개최를 매우 환영하며, 개막식에 초청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”고 사의를 표하며, “네옴 전시회 서울 개최 외에도 네옴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될 우리의 원팀코리아 기업들과의 네옴 및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참여와 투자를 확대하는 기회로 만들자”고 제안하였다.
- 또한, 전시회 서울 개관 계기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공동 세미나 개최를 제안하며, “전시회 개관 일정이 확정되면 우리 기업들에게도 알려 공동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덧붙였다.
- 나드미 CEO도 네옴 전시회가 한국 기업들의 참여와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원 장관의 언급에 동의하며, 성공적인 서울 네옴

전시회, 투자설명회, 공동세미나 등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.

- 이와 함께 네움 CEO는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한국 국민들이 네움을 더 잘 이해하고, 네움 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며, 특히 한국 기업들과의 개발협력 및 투자기회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.
- 전시기간 및 규모와 관련해서 원 장관은 “아시아에서 첫 전시인 만큼 한국의 젊은 세대와 기업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 바, 너무 단기간의 전시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의 수요 등을 검토하여 이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하였다”면서,
- 네움 CEO는 원 장관의 제안에 크게 동감하며, 원 장관이 전시기간 및 규모에 대한 제안을 하면 이를 즉각 반영하여 행사계획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.
- 원 장관은 이어서 네움 프로젝트를 넘어 중장기 양국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전시회 개최준비를 위한 양 기관 간 소통채널 구축, 상호 간 인력 파견 및 연락 사무소 설치 등 상시소통 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고, 네움 측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응답하였다.
- 국토교통부는 향후 네움 더 라인 서울 전시회 등이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해당 전시회를 계기로 우리 기업과 네움 간 네트워크 확대 및 메가프로젝트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 정보공유, 연계 행사 개최, 협력채널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2023. 4. 5.

국토교통부 대변인